

司牧研究

제47집 (202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처음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2019년 연말에 뉴스를 통해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원인 모를 폐렴 증세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말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 뉴스가 이렇게 2년간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3년째 전 세계를 혼돈과 위협으로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매일 같이 지배하게 될 줄을 말입니다.

지난 2021년 말에 갑자기 사목연구소장의 소임을 맡고, 본연구소의 정기 간행물인 「사목연구」의 주제를 정하고자 모인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 한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0년 10월 3일 성프란치스코 기념일 전야에 반포하신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회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회칙이야말로 초유의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사목연구소 임원들의 지혜를 모아 이 회칙을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해줄 필진을 찾고 그분들의 귀한 원고를 모아 특집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최근 담화에 대한 번역 여러 편을 함께 모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인 방종우 신부는 「모든 형제들」이 탄생하기까지 그 배경이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사상과 가톨릭 사회교리의 커다란 원칙들을 잘 정리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황으로서 아니 그 이전, 남미 대도시의 교구장으로서 겪어온 세속의 불균형한 자유로 인해 벌어지는 구체적인 문제, 즉 빈부의

양극화, 무분별한 환경파괴, 형제적 무관심과 가정의 해체를 지켜 본 교황이 이번 회칙 이전부터 여러 회칙, 권고, 서한을 통해 보여준 사상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이번 회칙을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연대성, 보조성, 재화의 보편적 목적, 공동선 등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 원칙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사회회칙이니만큼 회칙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안내가 되리라 믿습니다.

언론학 박사이며 서울대교구 사제인 김민수 신부는 “문화의 복음화로 바라본 회칙 「모든 형제들」”이란 논문을 통해 저자가 본당 사목자이며 동시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장으로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문화의 복음화’와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사목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고, 계속해서 문화의 복음화라는 시각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화의 본모습을 직시하며, 회칙이 제안하는 ‘새로운 문화’, 즉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통한 만남과 대화의 문화를 사목과 선교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본당의 모든 활동이 위축된 이 상황 속에서 팬데믹 이후 신앙공동체의 회복에 실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예수회 회원으로서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김민 신부는 “「모든 형제들」로 가는 길: 프란치스코의 정치신학”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을 통해 제시한 형제적 박애와 사회적 우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정치신학에 영향을 미친 신학적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남미 해방신학과 교황의 정치신학을 연결시키려는 시각에 대해서 저자는 관념적인 것 보다는 현실을 우선시하는 교황은 이미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 시절부터 해방신학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이 그의 정치신학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교황은 “인간을 쓰고 버리는 존재, 노약자나 장애인, 혹은 충분한 기술이 없는 이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주민이나 난민과 같이 아무런 보호막조차 없는 존재들을 짐덩어리로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환원적 인간학(reductive anthropology)의 병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형제회의 영속적 양성 위원장이며 프란치스칸 영성신학자인 김일득 신부는 “회칙 「모든 형제들」에 새겨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전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회칙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전 가르침, 특히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근본정신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프란치스코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선 회칙 「모든 형제들」의 제목에서부터 본문 전체에 이르기까지 담겨져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수도회 정신의 맥락을 살펴보고, 이후 회칙이 이 시대에 제안하는 질문과 성찰의 뿌리가 인간 존엄성, 형제애와 공동선으로 대표되는 프란치스코 전통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사목신학을 강의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에 대해 독창적인 번역과 탁월한 해석을 선보이고 있는 박동호 신부는 “2022년에 프란치스코의 ‘사목’을 생각하며”라는 글을 통해 “‘사목’이란 교의를 제시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 특히 인간과 사회에 관한 교의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이런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들,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문헌 「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들」 역시 ‘교의의 침투’와 ‘의식의 양성’의 길을 밝은 ‘사목’이라고 평가하였

습니다. 계속해서 “밭에 보물을 숨길 이유는 없다”(마태 13,44 참조)라는 말씀을 제시하며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찾아낸 보물을 우리 시대의 오류들, 요구들, 기회들을 고려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비범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의 ‘사목’이며 마땅한 교회의 소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소의 총무이며 가톨릭대학교의 윤리신학 교수인 방종우 신부는 “AI 윤리에 대한 로마의 호소”, “교황청 생명 학술원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담화”(2020.2.28), “인간 공동체”(Humana Communitas, 2019.1.6), “디지털 세계에서의 아동의 존엄성에 관한 총회에 참석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담화”(2019.11.14)를 번역하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긴급히 대두되는 윤리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로마 교황청과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본연구소가 그동안 진행해온 월례 세미나와 연례 학술 심포지엄이 불가능한 이 시대에 이번 「사목연구」의 작은 노력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다시금 모든 연구활동이 예전처럼 활발해질 그 날을 소망해 봅니다.

2021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이범주 신부

司牧研究 제47집 2021 겨울

차 례

발간사/ 3

이범주

〔특집〕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모든 형제들」에 나타난 사회교리 원칙들/ 9

방종우

문화의 복음화로 바라본 회칙 「모든 형제들」/ 47

김민수

「모든 형제들」로 가는 길: 프란치스코의 정치신학/ 90

김민

회칙 「모든 형제들」에 새겨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 전통/ 113

김일득

2022년에 프란치스코의 ‘사목의 사명(使命)’을 생각하며

— 발에 보물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마태 13,33 참조)/ 142

박동호

〔번역〕

「AI 윤리에 대한 로마의 호소」 외 / 188

교황청 생명 학술원 · 교황 프란치스코

방종우 옮김

〔부록〕/ 219

Ⅰ.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221

Ⅱ.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227

Ⅲ.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230

Ⅳ.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232

Ⅴ.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233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1 여름)/ 235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Rev. Lee, Bumjoo, J.C.D.
[Special Issue] Encyclical letter <i>Fratelli Tutti</i> of Pope Francis	
Principles of Catholic Social Teaching in <i>Fratelli Tutti</i> / 9	Rev. Bang, Jongwoo, S.T.D.
The Encyclical <i>Fratelli Tutti</i> in view of the Evangelization of Culture/ 47	Rev. Kim, Minsoo, Ph.D.
A Path to <i>Fratelli Tutti</i> : Pope Francis' Political Theology/ 90	Rev. Kim, Min, S.J.
St. Francis of Assis and Franciscan Tradition carved in <i>Fratelli Tutti</i> / 113	Rev. Kim, Ildeuk, M.T.S.
Thinking of Francis' 'pastoral mission' in 2022	
—Is there any reason to hide the treasure in the field(cf. Mt 13:33)?/ 142	Rev. Park, Dongho, M.A.
[Translation]	
Rome <i>Call for AI Ethics</i> and others/ 188	Pontifical Academy for Life and Pope Francis tr. by Rev. Bang, Jongwoo, S.T.D.
[Appendixes]/ 219	